

그린(Green)이웃되기는요?

- '그린이웃 실천단'을 모집합니다.
생태, 텃밭강사, 도시농업, 이웃공동체에 관심 있으신 분
- 꿈틀이 텃밭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.
주민센터, 어린이집, 학교, 빌라, 아파트, 공원 등
-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꿈틀이 토분 분양, 생태교육, 체험 프로그램
- 꿈틀이 골목길 가꾸기, 꿈틀이 축제를 개최합니다

지금 신청하세요
T. 02-825-7947



이 사업은 시민의 기부금으로



아름다운 재단이 변화의 시나리오에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

풀씨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동네모임이에요.
스스로 더불어 성장하면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가요.



풀씨모임

(156-808) 서울특별시 대방동 345-1 서울여성플라자 4층 돌옴터
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

Tel. 02-825-7947 Fax. 02-823-7947
E-mail. good7947@gmail.com
Cafe. <http://cafe.naver.com/good7947>
Blog. <http://goodactivist.tistory.com>

후원 . 우리은행 1006-001-334119 [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]



미래를 꿈꾸는 사람들
풀씨모임

이웃과 어우러지는 꿈틀이 텃밭 가꾸기



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면서
그린(Green) 이웃되기

그린 꿈틀이 텃밭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곳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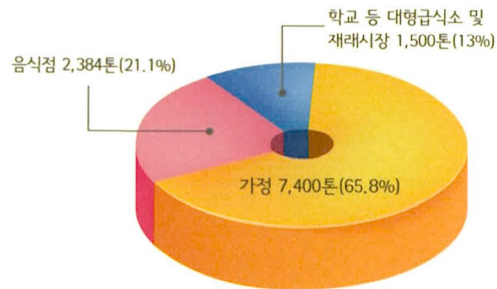
이웃 이웃과 어우러지면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.

생태 착한 농부 지렁이와 함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합니다.

실천 가족과 함께, 이웃과 함께 환경을 지킵니다.

내가 버린 남은 음식물, 지금 어디에...

- 남은 음식물은 도시 생활폐기물의 23.4%
- 우리나라의 남은 음식물은 하루에 11,300톤
연간 410만 여톤(8톤 트럭 1,400여대)



-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은 연간 1조원
상암 월드컵 경기장 70개를 짓는 비용
- 쓰레기봉투 10L 1장의 5백만가구 구입비용 352억원
- 지렁이를 키우면서 남기는 음식의 양이 학교는 97%,
가정은 81% 줄었어요.

출처 : (사)에코봇다, 환경사목위원회

지렁이는요....

- 착한 청소부, 지렁이
지렁이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분변토를 만들어
영양분이 가득한 퇴비를 다시 식물에게 돌려주는 착한
동물입니다.
- 환경 지킴이, 지렁이
지렁이는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면 살 수 없어요.
지렁이는 건강한 토양을 알려주는 지표동물입니다.
- 지렁이는 땅 속에 사는 쟁기
지렁이는 땅 속에서 여기저기 굴을 파서 땅 표면과 내부의
흙을 순환시키는 자연의 쟁기 역할을 합니다.
- 생태계 순환의 일등공신 지렁이
지렁이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다른 동물의 먹이로 자신의
몸을 내어주고 다시 지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.



꿈틀이가 좋아하는 환경은요?

- 지렁이가 살기 좋은 온도는 15~25도
지렁이는 너무 춥거나 더우면 잘 먹지 않고 잠을 자거나 죽어요.
- 지렁이가 좋아하는 습도는 60~70% 정도
배수가 잘 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이 좋아요.
손으로 흙을 쥐었을 때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습도가
적당해요.



꿈틀이 기르기

꿈틀이 집 준비

- 나무상자, 화분, 토분, 플라스틱, 서랍장 등 다양한 용기



토기 화분에 지렁이가 있는 흙을 담고 있어요.

무엇이든 잘 먹어요 !

- 과일이나 채소껍질, 감자, 호박 속
- 요리한 음식은 물에 헹구어 소금기 뺀 후 주세요.
- 생선, 고기는 많은 양을 넣으면 가스가 생겨 싫어해요.
- 흙 속으로 음식물을 넣어 주어야 벌레가 생기지 않고
냄새가 나지 않아요.